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제571호

지면안내 02 보도
지속된 찬바람에 휘청인 학생들

04 사회
“교수님, 제가 왜 B인가요?”

05 학술
뜨거웠던 부산과 마산의 시월

08 광고
제36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다시 활기찬 캠퍼스 되나

4단계에도 일부 수업 대면 진행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여부 미정

지난 12일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수업운영방안(이하 수업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수업운영방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위드코로나' 조치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진행 조건'과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시행 여부'다.

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8주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수업이 일체 불가능했지만, 9주 차 이후부터는 실험·실습·실기 위주의 대면수업이 일부 허용될 예정이다. 4단계에서 대면수업이 진행될 경우, 등교하는 모든 학생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PCR 검사(이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시간 15분 전에 강의실 입구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결과를 담당 교수 또는 조교에게 확인받아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하루에 2개 이상의 수업이 있는 경우 첫 수업에서 진행한 PCR 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추가 검사는 필요없다. 또한, 거리두기가 3단계 이하일 경우에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론과목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하될 경우에만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본부는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수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훈(학사운영팀) 차장은 “신중한 이론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건에 따라 대부분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가 학사지원팀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박 차장은 “졸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실험·실습과목 등에 대한 대면수업 진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향후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해 기말고사의 대면·비대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2학기 수업운영방안'에 따르면 중간·기말고사 중 1회 이상의 대면시험을 시행함이 원칙이었다.

대학본부는 기존 원칙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하됐을 때 대면시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중간고사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바 있다. 대면시험을 요청한 강의는 총 107개였지만, 모두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승인이 거절됐다.

한편, 지난 수업운영방안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시험기간 백신공결제 사용'은 출석 이점도도록 확정됐다. 박 차장은 “시험 당일 백신공결제 사용으로 불가피하게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수는 해당 학생을 위해 대체시험이나 대체과제를 마련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22일 추가 공지된 '수업 운영 계획'을 통해 교내 PC실습실 운영 안내도 공지됐다. 평일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다. 대여 가능한 장소는 미래관과 탐구관 PC실습실이다. 본부는 대면수업과 인접한 실시간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실습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jizhej@naver.com



공허했던 학교를 가득 채운 지난 17일에 진행된 '2022학년도 미술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본교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2학년도 실기고사는 무용과 미술 전형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번 실기고사는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기고사 방역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김지윤 기자 jizhej@naver.com

개교 50주년 기념,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오는 29일까지 대외협력팀이 '개교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전은 본교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모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휴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대학원생과 교직원도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공모전 주제는 '발전기금 모금'과 '한성사랑 소액기부'이며, 공모부문은 ▲영상 ▲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등이다.

공모전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1차와 2차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심사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교내 구성원의 투표로 이뤄지며, 발전기금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투표의 진행방식과 비교과 포인트 지급 여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말 총장실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1팀)으로 이뤄지며, 순위에 따라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공모전에 지원한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혜련(대외협력팀) 처장은 “한성대학교의 50주년을 알리고 공모전 참여와 기부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며 교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2022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무한한 가능성을만나다

가능성의 실현,
그 시작은 한성!

전공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넘어
높은 식견의 지식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HANSUNG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 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모집없음)
			사학과
		사회계	문화정보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석사	공학계	경제·부동산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예·체능계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특수대학원(야간)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영미문화학과(모집없음)
			사학과
		사회계	문화정보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석사	공학계	경제·부동산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예·체능계	기계시스템공학과(모집없음)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지속된 찬바람에 휘청인 학생들

실험·실습 만족도 조사 실시 일부 학생 기자재 사용 못해 외부 공간 대여로 지출 발생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실험·실습 수업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했다. 한성대신문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학생이 비대면 실험·실습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술학부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수업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 구글폼으로 실시했다. 본교 재학생 총 93명이 참여했으며, 조사문항은 ▲비대면 실험·실습 만족 여부 ▲실험·실습 수업 기자재 사비 구입 여부 ▲외부 연습·실습실 사비 대여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비대면 실험·실습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45명(48.4%)이 '만족', 48명(51.6%)이 '불만족'이라고 응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반복해 들은 뒤 여러 차례 복습할 수 있다는 점을 만족한 이유로 들었다. 허예원(컴공 4)

학생은 "대면수업에서는 수업을 듣다가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녹화된 강의를 통해 실습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반복해 학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불만족한 학생들은 기자재 및 연습·실습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실습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어려웠다'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어려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최세진(동양화 3) 동양화 트랙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돼 대면수업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실기 위주의 수업이 한 학기에 5번도 대면으로 하지 못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큰 리스크였다"고 설명했다.

실험·실습 기반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비로 지출한 사례도 발견됐다. '실험·실습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비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0명(64.5%)이 '예', 33명(35.5%)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학생들은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빈(산업경영 4)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으로 매달 1~3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지출되더라도 학생에게는 충분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실험·실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기자재를 지원했으며 필요에 따라 배송도 진행했다. 산업경영공학트랙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학생이 전달받거나 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는 학생이 학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찾아가야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등 학교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교내 출입이 어려워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교내 연습·실습실 대여 불가 및 시간 단축 운영 탓에 사비로 외부 작업 공간을 대여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5명(26.9%)이 '예', 68명(73.1%)이 '아니오'에 응했다. '예'라고 답한 학생은 대부분 ▲홀 ▲연습실 ▲작업실 등 외부 공간을 대여하기 위해 사비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지출한 비용은 월 3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아니오'에 답한 68명의 학생 중에서도 외부 공간 대여를 알아봤지만 비싼 비용 탓에 포기한 경우도 여럿 존재했다. 오재영(무용 3) 무용과 정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작년부터 휴대전화만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의 들어갔다"며, "학과 특성상 2~4학년의 경우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창작작품을 1년에 한 번씩 올려야 하기 때문에 외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교내 연습·실습실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시설을 학생에게 개방했다. 김지윤(회화과) 조교는 "3학년 판화 수업은 교내 실습실에 마련돼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이 졸업 전시

외부 연습·실습실 사비 대여 여부



25명 (26.9%)



68명 (73.1%)

*본 설문지의 표본은 93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5명, 2학년 27명, 3학년 21명, 4학년 10명이 응답했습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실험·실습 수업 기자재 사비 구입 여부



60명 (64.5%)



33명 (35.5%)

*본 설문지의 표본은 93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5명, 2학년 27명, 3학년 21명, 4학년 10명이 응답했습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개방 중"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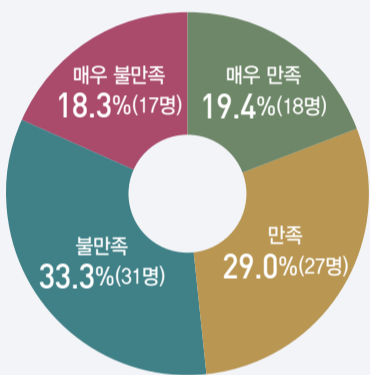
연습·실습실 신청자를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실제로 컴퓨터공학부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실습실 대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은 연습·실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공간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 트랙장은 "실기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하루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날로 변경해야 했다. 또, 사용 전후로 학교 사무실에 방문해서

용 시간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웠다. 현재 트랙 내 모든 학생이 교내 실습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훈(학사지원팀) 차장은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돼 기자재와 연습·실습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9주차 이후, 대면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예상된다. 향후 비슷한 문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비대면 실험·실습 수업 만족 여부



*본 설문지의 표본은 93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5명, 2학년 27명, 3학년 21명, 4학년 10명이 응답했습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2022학년도 무용·미술 실기고사 마무리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무용·미술 실기고사가 대면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기고사는 총 3일간 시행됐으며 무용 실기고사는 16일에, 미술 실기고사는 17일과 23일에 진행됐다.

본교는 교내 외부인 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실기고사 방역 지침'(이하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입학처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됨을 고려해 작년의 방역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내용에는 ▲입·퇴실 시 인원밀집 방지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 등이 있다.

전년도 실기고사 당시 건물과 고사실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소독으로 정제구간

이 발생했다. 본교는 인원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열 확인과 동시에 소독이 가능한 기계를 비치했다. 또한 퇴실 시 수험생의 거리유지를 관리하는 통제 조교 인원을 확대했으며, 고층부터 단계적으로 퇴실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교내 방역은 모두 전문 업체가 담당했다. 작년에는 교내 자체 방역과 전문 업체가 나눠서 진행된 바 있다. 전민우(임학관리팀) 차장은 "격상된 거리두기에 따라 전문 업체를 통해 교내 방역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방역지침에는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고사장 운영 ▲교내 출입 시 자가문진 결과 확인 ▲대기실 및 고사장 내 수험생 준수 사항 ▲수험생과 감독관 분리 ▲고사 당일 학부모 및 동반자 교내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별도고사장은 고사 당일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자가문진 결과 이상자를 위해 총 7개가 운영됐으며, 무용·미술 등 고사 유형에 관계없이 고사장마다 1명의 수험생이 배정됐다. 별도고사장의 모든 감독관은 KF94, 페이스선프, 보호장갑, 전신방역복 등을 착용한 후 출입해야 했다.

고사 당일엔 37.5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수험생은 최대 3회까지 3분의 간격을 두고 재측정했으며, 3회 모두 발열이 확인되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곧바로 유증상자로 분류, 별도고사장으로 이동했다. 자가격리자는 ▲외출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 ▲검진결과 음성통보 내역 서류 등을 고사 전날까지 입학처에 제출해야 별도고사장

에서 응시 응시할 수 있었다.

본교는 교내 출입 시 정문에서 자가문진 결과 확인도 실시했다. 고사 당일 아침에 문자로 자가문진표가 발송됐고, 이상이 없는 수험생에게만 QR코드가 제공됐다. 자가문진은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14일 내 집단 감염 시설 방문 이력 등으로 구성됐다.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 유지를 위해 고사장 당 수용인원도 제한됐다. 무용 실기고사는 한 고사장에 1명씩, 미술 실기고사는 60명 수용 강의실 기준 15명 내외로 배정됐다. 대기실에서 수험생 간 거리유지가 권고됐으며, 수험생 간 대화는 엄격히 금지됐다. 수험생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실 및 고사장의 입장시간은

각각 30분에서 1시간으로 한정됐다.

수험생과 감독관의 교내 입소 동선도 분리됐다. 수험생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었고 감독관은 정문을 제외한 ▲중문 ▲후문 ▲주차장 ▲DLC 등으로 출입 가능했다. 고사 당일 수험생을 제외한 학부모와 동반자는 교내 출입이 제한됐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되지 않았다.

한편, 본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여부를 꾸준히 확인했다. 전 차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수험생 명단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글로벌 역량 경진대회' 개최

교양영어과정에서 오는 11월 7일까지 제2회 Global Culture Competition(글로벌 역량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 대회는 학생들이 동영상 제작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본교 재학생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구글폼 신청양식 작성 후 제작 동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야 한다. 영상 주제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소개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상(1팀) ▲우수상(3팀) ▲장려상(6팀)으로 이뤄진다. 순위에 따라 40만 원, 10만 원, 5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모든 참가자는 비교과 20pt를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의 경우 비교과 40pt가 지급된다. 결과는 11월 26일에 본교 홈페이지와 수상자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대회 참여를 통해 실생활 영어를 배우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2021년 독감 예방접종' 비용 지원

오는 10월 30일까지 본교는 '2021년 독감 예방접종'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종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이며, 휴학생과 졸업생도 해당된다.

접종 장소는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경희통합의원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접종희망자는 신분증과 함께 학생증이나 사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원내 2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야 한다.

접종가격은 본래 35,000원이나, 해당 기간에는 본교부담금 7,000원을 제외한 2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일과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고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차장은 "올 가을철은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을 모두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비교과의 모든 것 관리해 드립니다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오픈 학생 위한 새로운 기능 추가 HOPE 시스템 단점도 보완 2022년 3월부터 정규운영

이번 학기부터 '한성 e-포트폴리오(이하 HOPE)'가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이하 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자기관리시스템은 비교과 활동·포인트를 비롯한 비교과 관련 사항, 상담 및 진로·취업 지원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생성공센터는 HOPE 시스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기존에 학생들이 비교과 관련 사항을 확인하던 HOPE는 2022년 3월 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HOPE는 데이터 업데이트 및 입력 등은 불가하고, 조회 기능만 사용 가능하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홈페이지 로딩 속도와 UI다. HOPE는 로딩 속도 지연 현상이 발생하곤 했는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생긴 오류였다. 개편 과정에서 오류를 제거하면서 로딩 속도가 향상됐다. 또한 홈페이지 UI는 메뉴 직관성을 높이는 등 보다 간결하게 변화했다. 나지영(학생성공센터) 부팀장은 "기존 HOPE의 메인 화면이 복잡해 원하는 기능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추가된 기능에는 ▲포트폴리오 및 교육확인증 발급 ▲교내 시스템 연동 ▲알림 등이 있다. 학생은 자기관리시스템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포트폴리오 및 교육확인증 발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는 본인의 누적된 비교과 활동이 기록돼 있으며, 원하는 활동별로 출력 가능하다.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수기로 발급받아야 했던 교육확인증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나 부팀장은 "포트폴리오와 교육확인증은 학생들이 누적된 비교과 활동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나아가 취업을 준비할 때 소중한 활동 경력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관리시스템은 e-class 및 전자출결시스템 등의 기타 교내 시스템과 연동체계도

갖췄다.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가 e-class 연동 설정을 하면, 학생은 프로그램 신청과 동시에 e-class에서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과 연결돼, 장기 결석자가 교수자와 원활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이수 및 참여승인, 비교과 포인트 지급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HOPE는 별도의 알림창이 없어 팝업 형태로 공지됐다는 단점이 있었다.

'설문조사 게시판'과 '참여후기 게시판'도 신설됐다. HOPE에서는 설문조사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게 비교과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나 부팀장은 "설문조사 운영을 체계화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정확한 실적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를 따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본 게시판을 통해 설문에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게시판을 이용해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비교과 5pt를 지급받는다.

'참여후기 게시판'은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후기를 공유하는 곳이다.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제출된 후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후기를 작성하면, 활동 종류 하나 당 비교과 2pt가 지급된다. 나 부팀장은 "해당 게시판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진단 종류에 ▲학생성공유형검사 ▲진로개발 통합진단 ▲마음건강 자가진단 등의 항목도 추가됐다. 나 부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검사와 진단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개편 과정에서 HOPE의 기능이 보완되기도 했다. 자기관리시스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검색 ▲캘린더 ▲교외 비교과 활동 포인트 신청 ▲상담 및 진로·취업 지원 ▲학생 기본 정보 조회 등의 기능이 개선됐다.

'비교과 프로그램 검색'은 시각적 정보를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프로그램의 신청시기와 참여시 지급되는 비교과 포인트가 각각 'D-DAY'와 'p'로 표현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순서대로 정리되는

검색 옵션인 '종료입박순'도 생겼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일정 확인에만 그쳤던 '캘린더' 기능은 프로그램 정보 확인은 물론, 신청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해졌다. 나 부팀장은 "학생이 프로그램을 쉽게 찾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무엇보다 화면의 가독성을 높여려고 했다"고 밝혔다.

'교외 비교과 활동 포인트 신청' 방법도 달라졌다. 자기관리시스템은 교외 활동을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공인어학시험 ▲교외수상실적 ▲재직·조기취업 ▲기타로 분류했다. 학생은 활동 분류를 선택하고, 세부적인 활동 내용이나 자격증은 해당 페이지에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HOPE는 하나로 이어진 표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학생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상담 및 진로·취업 지원'은 본래 ▲학생상담 ▲진로설계 ▲취·창업정보 ▲실전취업 등으로 분리됐던 기능들을 '교수·심리상담'과 '진로·취업'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먼저 '교수·심리 상담'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과 지도교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진로·취업'을 통해서도 취업상담 및 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현장실습 신청 등이 가능하다.

'학생 기본 정보 조회'는 지도교수만 학생의 연락처, 성적 등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교수가 학생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HOPE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HOPE에서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정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비교과 포인트가 누락되기도 했다. 학생성공센터는 학생들에게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누락된 포인트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자기관리시스템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3월 1일부터 정규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성공센터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메일과 전화로 불편 및 오류 사항을 접수받아 홈페이지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부팀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오류 등을 최소화해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학생원스톱지원센터' 서비스 정상 운영 시작



▲학생이 학생원스톱지원센터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지난 12일 '학생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센터)'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1일에 열린 개소식 이후, 온라인 홈페이지 수정 과정도 완료됐다. 원스톱센터는 증명서 및 학생증 발급 등 학생에게 대학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의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한다. 오프라인으로 원스톱센터를 이용하려면, 상상관 1층 로비를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면 된다. 학기 중 원스톱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대학교 학생원스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마음건강 자가진단' 학생 설문조사 실시

지난 10월 5일부터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마음건강 자가진단(이하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 설문조사는 학생이 마음건강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심리상태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본교 재·휴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과 기간에 제한은 없다. 검사 결과는 설문조사 종료 즉시 열람 가능하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 방문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비교과 5pt가 지급되며, 휴학생은 누락됐다가 복학 후 적립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자가진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에 한해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도 운영 중이다. 본 설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달라진 학교생활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으며, 마감 기한이 없는 자가진단 설문조사와 달리 오는 11월 5일까지만 시행된다. 참여 학생에게는 비교과 5pt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최문정(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늘었다. 이번 한 달간 자가진단 설문조사와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응답하면 총 비교과 10pt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 주제** | 자유 주제
-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2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학보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모집기간** | 상시 모집

-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 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학번/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입
-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교수님, 제가 왜 B인가요?”

항목별 세부 성적 공개는 학생 권리 성적 이의신청 답변 받을 수 있어야 상호 피드백 통한 성적 고지 필요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대학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다. 대학은 학생이 인격과 학술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학생의 발전은 교수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서 탄생하며,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학생의 과제, 시험 등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 학생들은 꾸준히 ‘세부 성적 공개’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나 충분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본지는 성적 공개와 관련한 대학사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도권 4년제 대학교 70개*의 ‘항목별 세부 점수 공개 현황’과 ‘성적 이의신청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수도권 4년제 대학교 70개 중 20개가 출결, 과제, 시험 등의 세부 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의 모 대학교 학사팀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부 성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 성적을 일괄 비공개 처리하는 학교는 39개, 교수자 재량으로 공개하는 학교는 11개로 확인됐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지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적 세부 공개 및 성적 이의신청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본 설문 조사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으로 진행됐다. ‘학교 시스템상에서 의무적으로 출결, 과제, 시험 등의 세부 성적을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05명 중 298명(97.7%)이 ‘예’라고 답했다. 세부 성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학습권 및 알권리 보장’이 가장 많았다.

일부 교수들 역시 항목별 세부 점수 공개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이 어떤 근거로 최종 성적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성택(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세부 점수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자신이 해당 성적을 받은 이유와 소속된 분반에서의 위치 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성적 공개를 찬성하는 교수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 실력이 발전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이현우(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피드백이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인 만큼 학생에게 교수자의 설명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수자와 학생 간의 피드백 과정은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큰 도움을 주고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을 줄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지영(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 교양학부) 교수는 “세부 점수를 모두 공개하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점수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에 납득해 이의신청이 거의 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반면, 세부 성적 공개를 반대하는 이들은 일괄적인 공개가 아니라도 학생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의신청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지영 교수는 “자신의 점수만을 아는 정도로는 정보가 빈약하다. 학생에게 수업 전반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등이 공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실습이 주를 이루거나 서술형 시험으로 평가를 내리는 수업은 정성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해당 수업들은 학생이 교수자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납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부 성적 공개는 필요하지만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다각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전언이다. 임현열(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는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전문가가 내리는 직관적인 평가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며 “세부 성적 공개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면 ‘공정한 평가’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타당한 평가’인가

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최종 성적이 확정되기 전, 담당 교수자에게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부 성적을 고지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의신청은 교수자에게 성적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학생의 이의신청에 대해 교수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자에게 이의신청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해 결국 성적 정정을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적 이의신청에 대한 교수자의 답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05명 중 288명(94.4%)이 ‘예’라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성적 정정 결과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 요인을 분석해 추후 보완을 위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의견과 ‘성적 오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이라면 당연히 답변이 필요하다’, ‘학생의 이의신청이 터무니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까지가 교수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교수자의 답변율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 학교들도 있었다. 본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8개의 대학에서 학교 시스템으로 교수자와 학생이 이의신청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은 효율성 측면에서 선호된다. 임 교수는 “학교 이의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사로운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확연히 줄며,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교신은 시스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이지원 학생은 “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은 교수님마다 개인 연락망을 확인해 메일, 문자 등의 수단으로 일일이 연락하는 방식보다 접근성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며 “실제로 본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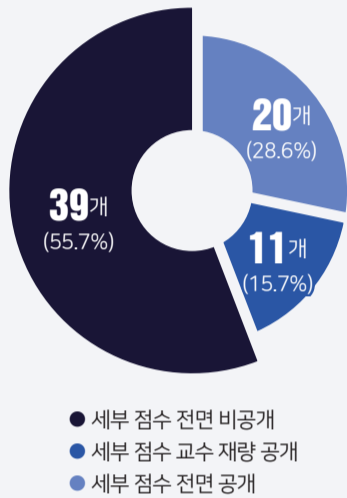
이의신청 관련 전산 시스템이 없더라도 학생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 교수는 “성적에 대한 의문 제기는 학생의 권리이므로 재검토 요청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교수자는 학생에게 성적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들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최선의 세부 성적 공개 방안과 이의신청 방식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세부 성적 공개와 이의신청 전산 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 중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학사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세부 성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대학교 학사팀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만으로도 편리하게 이의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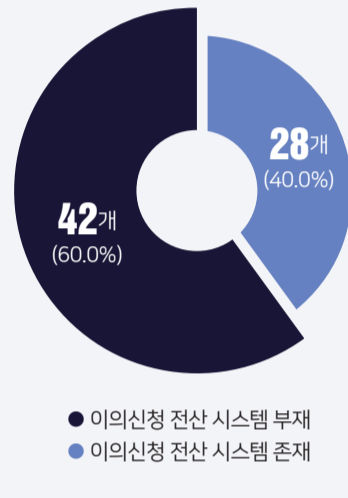
*수도권 4년제 대학교 70개 : 『고등교육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범주이며,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본교는 본교와 상이한 대학으로 처리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항목별 세부 점수 공개 및 성적 이의신청 방식’ 전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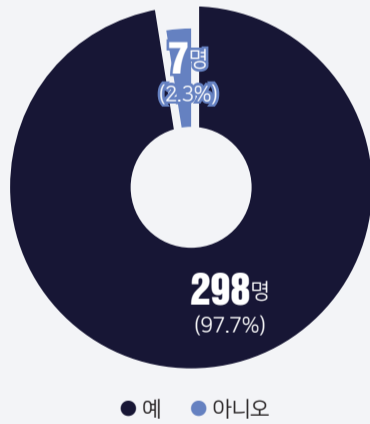


*대상 : 수도권 4년제 대학교 70개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성적 세부 공개 및 성적 이의신청’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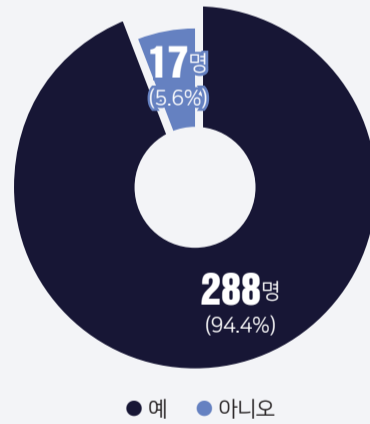
Q. 학생들이 자신의 출결, 과제, 시험 등의 세부 성적을 알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 상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표본 :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305명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Q.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에 대한 교수자의 답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의 성적 문의에 대해 교수자가 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척’했던 스타벅스

매뉴 2개 시켰는데 322번째로 2시간 기다려서 받아왔다. ‘선착순으로 준다는 말에 세수도 안 하고 뛰어갔다 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지난 9월 28일 진행한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에서 ‘리유저블 컵’을 받은 사람들의 SNS 게시글 내용이다.

리유저블 컵 데이는 글로벌 스타벅스 50주년과 세계 커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스타벅스는 이날 주문 음료를 리유저블 컵에 담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 당일 고객이 몰려 음료를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고, 결국 고객이 가져가지 않고 쌓인 음료가 컵을 전량 폐기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가 과도한 마케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혁(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리유저블 컵 행사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은 마케팅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스타벅스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에 휩싸였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환경친화적인 양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다회용 컵을 나눠주는 행사가 환경을 위한다는 점에서 음료를 구매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리유저블 컵은 재사용 컵이라는 뜻과 달리 사용 권장 횟수가 20번 내외다. 뿐만 아니라 컵의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은 일회용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일반 플라스틱이다. 행사에서 제공된 컵은 화학 잉크로 그림과 글씨까지 새겨져 재활용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하는 스타벅스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친환경 행사가 소비자를 이끌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결과가 환경친화적인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벅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이유로 ‘개인컵 음료 제공’을 금지한 상태에서 해당 행사가 진행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스타벅스에서 나눠준 컵을 스타벅스에서 쓰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논란을 인식한 듯, 행사 다음 날인 29일부터 개인컵 음료 제공을 허용했다.

그린워싱 논란과 함께 근로자 처우가 미흡한 스타벅스의 모습도 드러났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직원들은 트럭 시위를 벌이며, ‘두 얼굴의 마케팅’을 멈추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매장의 인력 상황은 무시한 채 소비자가 물리는 행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다. 1999년 국내 1호점이 생긴 이래로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않았던 스타벅스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직원은 기업의 내부 고객으로, 만족한 내부 고객이 최종 고객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로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고객 만족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지역사회에 환경적으로 기여하고,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겠다’, ‘파트너는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 지난 트럭시위 이후 채용 확대, 매장 직원의 임금 체계와 직원 휴게 공간의 개선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소비자, 직원과 함께 상생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상상부기 디자이너' 최현아 학생



▲현재 판매 중인 상상부기 굿즈 시리즈

▲캐릭터 디자인을 위해 작업하는 과정

“상상관이 지어질 무렵, 공사를 진행하다가 땅속에서 커다란 알이 발견됐어요. 놀란 사람들은 그 알을 소중히 보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알에서 등껍질 가방을 멘 거북이가 태어났어요. 그 후, ‘공식 캐릭터 전형’을 열심히 공부해 본교에 20학번으로 입학한 거북이는 한성인 돕기를 좋아하는 상상부기예요.” 당신은 이 상상부기 캐릭터를 만든 디자이너가 본교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작고 귀여운 상상부기의 제작자, 최현아(CT 4) 학생을 만났다.

처음부터 캐릭터 디자이너가 그녀의 꿈은 아니었다. 최 씨는 대학에 막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만화 중앙동아리인 ‘매나니로’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타 학교의 공식 캐릭터를 접한 후, 대학 굿즈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 당시 우리 학교에는 공식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마스코트 제작을 위해 열린 본교 공모전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최 씨는 캐릭터를 제작하면서 ‘섬복이’, ‘상상복이’, ‘한성이’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고민했다. 캐릭터의 이름이 더 귀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상상부기’를 소리는 대로 적어 ‘상상부기’라는 명칭을 만들어냈다.

이름을 짓는 과정부터 고민의 연속이었는데, 디자인이라고 순탄했을 리 없다. 최 씨는 캐릭터에 본교의 상징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학교 상징 동물부터 교표와 교육까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조사했고 소나무와 거북이, 다양한 교표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을 받은 건 거북이었다.

“캐릭터에 학교가 강조하는 상상력을 담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고민했죠. 상상부기 등껍질을 가방으로 묘사했고, 그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등껍질에서 꺼내 쓸 수 있게 설정했어요. 마치 도라에몽 주머니처럼요.”

기대를 가득 안고 참여했던 공모전이지만,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학업과 공모전 작업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공모전 기간에 과제 마감에 자주 겹쳤고 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모전과 과제 마감에 자주 겹쳤어요. 시간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도 노력했어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도전했죠.”

대상의 영예를 얻은 후에도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상상부기가 마스코트로 선정되고 불과 1년 뒤, 상상부기와 함께 우리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상상부기 프렌즈 캐릭터 공모전(이하 프렌즈 공모전)’이 열린 것이다. 최 씨는 또 다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본교의 상징 동물인 거북이를 모티브로 상상부기를 만들었으니, 동물로 캐릭터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 학교 주변에는 학내 구성원의 관심을 받던 고양이들과, 꼬꼬와 꾸꾸라는 닭들이 있었다.

“캐릭터를 디자인할 당시 이야기를 상상해서 구성해 봤어요. 상상부기가 학교 정문을 지나가던 중 학교 주변에 살고 있던 한성냥이를 마주쳐요. 한성냥이는 상상부기가 자신의 집사가 되길 원했고, 상상부기에게 말을 걸어요. 하지만 상상부기는 한성냥이에게 친구가 되자고 한 거죠. 그리고 평소 상상부기는 가방에 상추를

넣어두고 배고플 때 꺼내 먹는데 상상력이 담겨 있는 가방에 상추가 있어서 귀여운 캐릭터인 상추가 만들어졌어요.”

최 씨는 이미 상상부기로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기에, 프렌즈 공모전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또 다시 그녀의 캐릭터가 채택됐다.

“프렌즈 공모전에 올라온 캐릭터 후보들의 완성도가 높아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많은 학내구성원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도 프렌즈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었어요.”

현재 상상부기와 프렌즈 캐릭터들은 본교의 공식 마스코트로서 독특히 활약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다양한 굿즈부터 카카오톡(이하 카톡) 이모티콘까지 제작됐다.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가 키링, 노트, 인형 그리고 카톡 이모티콘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뿌듯해요. 캐릭터들을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 씨는 굿즈와 이모티콘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본교 공식 인스타그램에 발행되는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도 힘을 쏟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래픽 디자인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카드뉴스 아이템 기획, 내용구성,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

“홍보팀에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발행할 당시 어떤 주제로 내용을 구성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경험이 없던 이모티콘 제작 과정에서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일반 굿즈 제작과 달리 이모티콘은 움직임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1개의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20개가 넘는 프레임이 그려야 한다. 움직임 없는 여러 장면을 겹친 후 재생하면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다.

“학생들이 잘 쓰고 있다는 말을 듣는 지금은 그 시기가 뿌듯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컨대, 이모티콘 작업 후반에 수정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프레임은 한 장씩 수정해야 했죠. 또, 색상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동안 했던 모든 작업물의 색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완성해 반응을 살펴보면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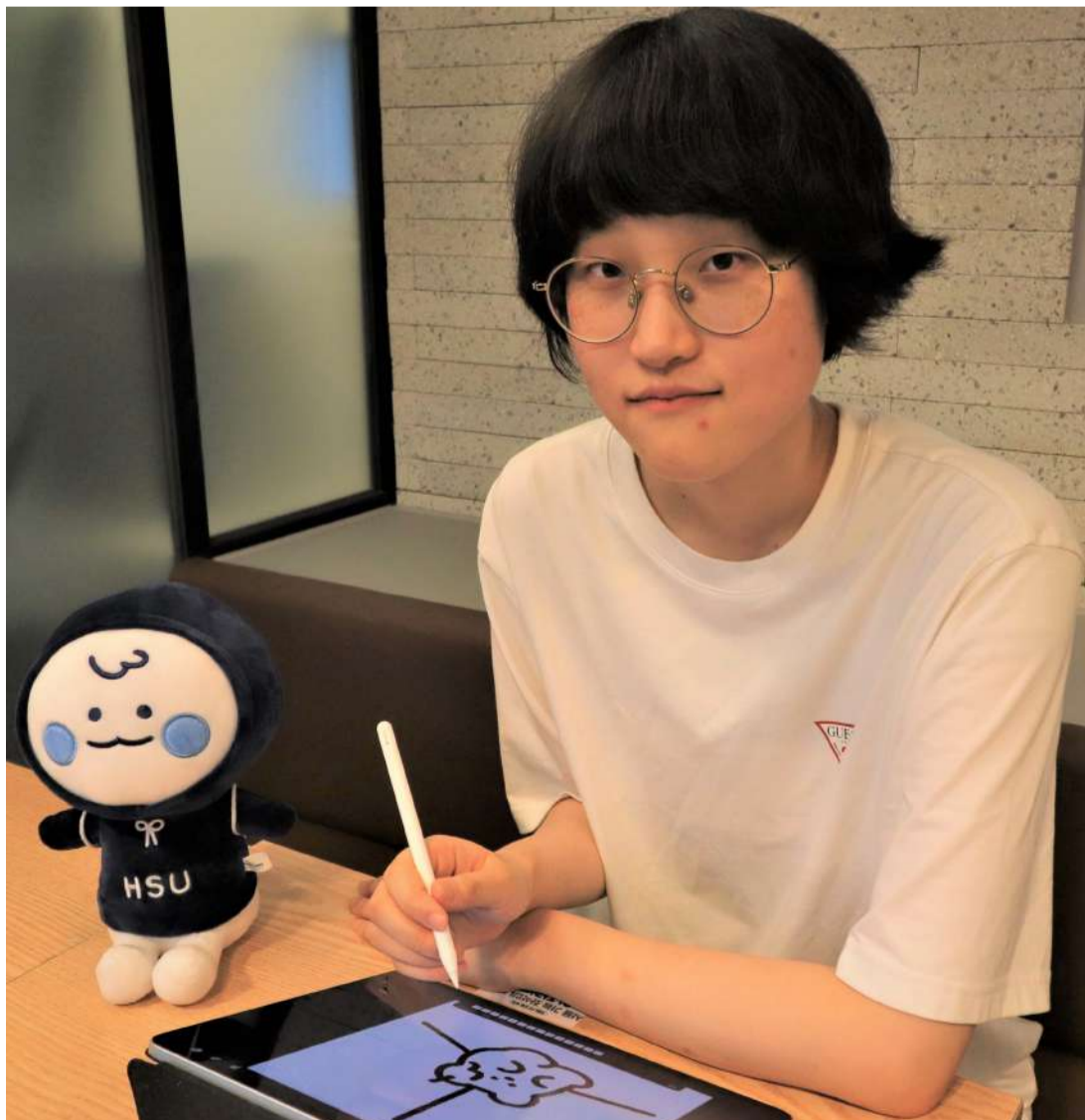
그녀는 두 번의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받은 삼아, 교외 공모전에도 도전했다. 서울 메트로에서 진행한 ‘9호선 지하철 캐릭터’와 한 보험사가 주최한 ‘기업 SNS 홍보 캐릭터’ 공모전이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최 씨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라 여겼다.

“본교에서 진행했던 두 번의 공모전에서 얻은 용기로 캐릭터 디자이너라는 목표가 확고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죠. 교외 공모전은 주제나 기업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이 수상하지 못한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실패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화가라는 꿈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변경한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최 씨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만화 제작, 패키지 디자인, 서양화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여기저기 찢러보기만 하고 한 가지를 끈기 있게 하지 못해 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도전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를 엮어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는 것보다 밖으로 눈을 돌려 함께 여러 경험을 쌓는 건 어떨까요.”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끝없이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에
가까워질 거예요”



뜨거웠던 부산과 마산의 시월

- 

1972. 10. 17
유신헌법 선포
- 

1977
석유파동과 부가가치세 신설
- 

1979. 8. 9-11
YH무역 여성노동자 농성
- 

1979. 10. 4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
- 

1979. 10. 15
부산대학교에서 시위 시도
- 

1979. 10. 16
부산대학교에서 부마민주항쟁 발발
- 

1979. 10. 17
부산 시민들의 시위
- 

1979. 10. 18
부산 계엄령 선포, 마산 지역 시위 발발
- 

1979. 10. 19
마산 시민들의 시위
- 

1979. 10. 20
마산 위수령 선포, 부마민주항쟁 종료
- 

1979. 10. 26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시해

“유신헌법! 독재타도!”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부산과 마산에 울려 퍼진 목소리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은 정부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이 시위를 ‘부마민주항쟁(이하 부마항쟁)’이라 부른다. 당신은 부마항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유신헌법에 대한 불만

부마항쟁의 큰 원인은 유신(維新)체제 하에서 일어난 시민 억압이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유신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간선제 조항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후 대학생들 중심으로 유신헌법과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1973년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각 대학교에서 크고 작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굴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실시해 강력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탄압했다.

1970년대 후반 부산과 마산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도 부마항쟁의 원인 중 하나다. 부산과 마산은 수출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뤘는데 석유파동으로 인해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해직자들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일도 시위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1979년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강경하게 진압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는 점을 빌미로 민주공화당과 유신헌법회**에 의해 국회의원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과 마산의 시민, 특히 학생들은 이 사건에 큰 자극을 받았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전도걸(63) 씨는 “당시 YH사건 진압과 김 전 대통령의 의원직 제명 등 정권의 폭압적인 처사로 사회 분위기가 악화됐고,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부마항쟁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과정은 어땠을까?

닷새간의 항거

1979년 10월 15일, 일부 학생들은 부산대학교에서 시위를 도모했으나 실패로 끝난다. 학생들 간의 모인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날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언문 2개만 배포됐다.

다음날인 16일부터 본격적인 부마항쟁



▲마산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
당시 학생들은
감옥은 물론이고
죽을 각오로
시위에 임했다
”

이 전개된다.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시위는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그 결과 오후 7시 무렵에는 남포동 부영극장 앞 거리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퇴근하던 회사원, 근처 상인,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했다. 전 씨는 “16일 부영극장 앞 시위대 속 대학생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날 시위대의 80% 이상이 시민이었다”고 밝혔다.

17일, 전날의 소식을 접한 동아대학교 학생과 시민들이 가담하면서 시위대 인원은 더욱 불어났다. 또다시 부영극장 앞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지만, 사전에 시위를 예상하고 배치되었던 경찰이 개입했다. 그리고 경찰들은 시위대를 강하게 탄압했다. 전 씨는 “경찰이 곤봉으로 시민들을 때리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종종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무력

진압에 시민들은 경찰서나 파출소를 습격하거나,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과 언론사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18일, 정부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본격적으로 계엄군이 투입되자 시위의 불꽃은 찾아들었다.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들도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동관(67) 씨는 “다니던 대학교는 물론 시내에도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계엄군을 상대하는 경찰이 진압할 때처럼 시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마산 지역에서도 시위가 시작됐다. 부산의 소식을 접한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힘을 보탰다. 당시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성기(경남대학교 경제 금융학과) 교수는 “마산에는 오랜기간동안 시위가 열리지 않아서 시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나 학생과 시민들의 열렬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19일, 부산에 있던 계엄군의 일부가 마산에 투입된다. 그러자 마산 시민들은 정부의 진압을 피해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날의 시위대는 새벽까지 활동했고 부마항쟁의 마지막 시위가 됐다.

20일, 마산의 시위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마산에 위수령***을 선포한다. 위수령이 선포되면서 마산에 군부대가 자리 잡았다. 군부대는 경찰과 함께 경계를 서며 시민들의 동향을 살폈고,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결국 치열하게 일어났던 시위의 불씨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부마항쟁의 흔적

부마항쟁은 비록 직접적으로 유신헌법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으나,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표현했다. 부마항쟁이 종료되고 후 6일이 지난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18년간의 유신헌법이 막을 내렸다. 홍순권(부마민주항쟁신규명량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신헌법이 부마항쟁에 굴복한 건 아니지만, 항쟁으로 인해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끝이 난 부마항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남겼다. 부마항쟁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시민항쟁이었다. 홍 위원장은 “부마항쟁은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일궈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이 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 긴급조치: 국가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 유신헌법회: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으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

*** 위수령: 군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는 조치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 시위대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시위대가 휩쓸고 간 파출소가 폐허로 변했다.

· 삼 학 송 ·

1년 8개월의 기다림

‘저는 언제 학교를 갈 수 있나요,’ 대학 생활의 절반이 지났는데 학교를 못 가봤어요. 20·21학번 학생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개강이 연기됐던 2020년 3월, 그 후 기약없이 이어진 비대면 체제가 드디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철저히 고립돼갔다. 입학식과 졸업식, 축제 등의 행사도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그마저도 화면 너머로 지켜봐야 했다. 또한 선·후배 사이의 교류도 단절됐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게재된다. 심지어 비대면으로 시험이 진행되면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교수자가 동영상 재사용하는 등 강의의 질 저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10월 12일,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수업운영방안’(이하 수업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업운영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4 단계에서도 실험·실습 수업에 한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방침도 단계별 완화된 것으로 보아, 머지않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이 보인다. 필자도 동기를, 선·후배들과 교정을 거닐 생각을 하니 설렘이 가득하다.

마음 한 구석에 코로나19가 또다시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은 것도 사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개

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수시로 뒤바뀌었다. 시간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다.

당장 이번 학기만 해도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건만 상황은 악화돼 전면 비대면 체제로 개강을 맞이했다.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비대면 체제의 종결을 기대했으나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다가도 다시 온라인 강의를 듣기 부지기수였다.

물론 과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던 몇 시기와 달리,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기도 했다. 또한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장담은 할 수 없다.

본부는 수업운영방안을 통해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는 과연 학생들이 이 권고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할지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는 관찮아를 좋아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지자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문구다. 점차 대면 활동이 늘어나게 될 지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시간이다.

오랫동안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일상로의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의 거리는 좁아지고, 물리적 거리가 좁아짐을 경계하는 편이 좋을 듯싶다. 멀리서라도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신혜림 편집국장

김기자의 시선



현재와 과거의 불협화음

지난 9월 30일, ‘김포 장릉’과 약 4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2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추존왕 원종과 인현왕후가 안장된 장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변경 500m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은 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그 결과 세계유산은 가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강력한 규제 마련으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기현 기자

기자수첩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려면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13,076건에서 2020년 18,280건으로 최근 5년간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8월 일일순찰차 배치를 모든 고속도로에서 국도 등 일반 도로로 확대했다. 지난 6개월간 집중 단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집중 단속은 오토바이 사고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호 위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지난 7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행이 잦은 교차로 15곳에서 3시간 동안 지나간 9,633대의 오토바이 중 4,476

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 사고 중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9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2016년 8,806건에서 2021년 9,316건으로 사고율이 34.6%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신호 위반 사고가 무려 65.6%를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민 의식 개선이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의 구축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반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하면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모집 중인 공익제보단의 수도 지급보다 더 늘려야 한다.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의 검거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게 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여러 사고와 사건으로 시끄러운 도로에서는 나 하나만 조심한다고 안전할 수 없다. 도로 위에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해치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안전한 사회와 멀어지는 방법이다. 단순 단속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모두 막을 수 없다.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혜은 기자

의화정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가수 이적이 리메이크한 ‘걱정말아요 그대’란 노래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가사가 나온다.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들을 달고 산다. 필자가 고등학생 때는 “대학만 가면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꿈꾸며 공부했다. 아마 대한민국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저런 말을 하며 공부하기를 독려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민과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최소한 필자는 그러하였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만 가면 모든 고민이 없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대학을 오니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경쟁을 해야 했고, 군대도 다녀와야 했으며,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일명 스펙을 쌓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했다. 대입이란 걱정이 없어지니 새로운 걱정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런 고민들을 가진 채 군 입대를 했고, 입대를 한 첫날부터 얼른 병장이 되고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장이 되었고 군 생활은 편해졌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졸업하면 뭐 하지?’와 같은 또 다른 걱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그러한 고민들을 하며 지내던 중, 한 후임이 휴가 다녀온 얘기를 하며 이런 말을 했다. “빨리

전역해서 여자친구랑 맘껏 데이트도 하고, 졸업해서 얼른 돈 벌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며 지었던, 조금의 걱정과 근심 없이,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해 보였던 그 후임의 행복한 표정이 필자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얼굴을 보며 얘기를 듣는데, ‘병장인 나는 전역 후 걱정부터 하고 있는데, 상병인 후임은 왜 이리 행복해 보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무언가 잘못되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다음으로 넘어가면 없어질 것 같았던 걱정들은 매번 새롭게 다시 나타났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걱정을 해왔는데 걱정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행복하지 못했다. 그때 느꼈다. ‘아!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겠구나.’

우리가 가진 걱정의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나머지 20% 중에서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도 안 된다고 한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걱정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선 스스로 걱정을 날고 있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용희(IT융합공학부) 교수

낙산에 올라

우리 학교엔 항상 고마운 마을버스가 있다. 바로 성북 02번 버스다. 한성대입구역에서 심어 분을 걸어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오후엔 성북 02번 버스가 우리를 학교로 데려다 준다. 학교 정문까지 들어오는 버스는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성여중·여고로 향하는 이들에게 모두 유용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성북 02번을 이용했고 버스 내부는 풍나물시루를 이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북 02번 버스는 누군가를 태우고 달린다. 바로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 일부 학우들, 그리고 격주로나마 등교하는 한성여중·여고 학생들이다.

성북 02번 버스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

성북 02번 마을버스와 승객들

시)의 마을버스다. 준공영 및 공영 체제인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운영상 적자를 기록해야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이용객은 1년 사이 27% 감소했다. 승객 4명 중 1명이 줄어든 꼴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900원으로, 요금은 6년째 동결된 상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운수업체들은 ‘감차’라는 대안을 내세웠다.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적자 위기에 몰린 운수업체의 교육지책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요금인상이 있지만, 요금인상은 정치인들도 언급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감차가 지속된다면 배차 간격이 증가해 시민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다.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시기가

됐다. 궁극적인 해결은 팬데믹 종결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비대면 체제가 일상이 됐더라도 모든 일이 화면 속에서 이뤄질 수는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온라인 주문을 모르는 노년층은 장을 보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서야 한다. 결국 대면 업무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자금의 마을버스가 연명할 수 있는 것이다. 팬데믹 탈출의 유일한 방법인 백신 접종은 언제 끝날까. 접종이 끝난다는 올 가을엔 다시 학우들의 얼굴을 직접 웃으며 보게 되길 희망한다. 낙산 자락에 오르는 성북 02번 버스에서 말이다.

김준원(인문2)

기자사령

퇴
정 기자 박성희(인문3)
수습기자 서민찬(사회과학2)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9월 30일 「장학의 이론과 실제」, 도서를 출판했다.
김지현(CT디자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된 '20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제 36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1년 9월 23일(목)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73호 (12월 6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